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0월 16일 (제86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도구나 흥기나

칼은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음식을 만들려면 칼은 필수다. 그러나 칼이 어떤 자에게 잡히느냐에 따라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흥기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요즘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운전대를 잡았느냐에 따라 자동차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권력도 그렇다. 사람다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남을 살릴 수 있고 나라에 공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나, 악인의 손에 있으면 이것이 일신의 안일과 축재의 도구가 되어 남을 짓밟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돈은 안 그런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일만 선의 뿌리가 된다.

나는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세계적인 인재와 인물들도 많이 접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라는 것이다. '실컷 공부한 것을 남을 해치는 일이나 사기 치는 일에 쓰면 안 된다, 선한 사업에, 좋은 일에, 남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쓰라'고 당부한다. 가지고 있는 권력, 부를 합당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쓰라고 신신당부한다.

가끔 사회면을 장식하는 지능범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머리가 좋다.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머리를 남을 죽이고, 사기 치고, 도적질하는 쪽으로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머리를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머리라도 마음 자세에 따라 도구가 되거나, 흥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울곧게, 바르게 가져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면 된다. 그래야 세상이 안전하고 아름다워진다.

전쟁기념관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월 3일, 이 날의 감격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전날,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기상청 예고대로 성회 전날인 주일부터 비는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회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마귀도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성회 당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흐리던 하늘은 거짓말처럼 용산 전쟁기념관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집회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집회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어 특별순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리고 이시대 목사의 인도로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합심기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보좌에 충분히 울릴 만큼 간절했다. 어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랴! 먼저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목사님은 이날, 평화의 광장을 가득 메운 회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총칼을

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핵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도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북쪽과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이혼하듯, 대화 없는 노사가 싸우듯, 북쪽과 대화가 없으면 더욱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 화법을 찾아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



제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Photo by Kim,Munhwan 2016

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였다. 물로 가득했던 집회 장소는 강렬한 태양으로 인해 곧 말랐고, 준비요원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지.” 찬송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통일을 염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은 물론 광장 밖 통행로 및 입구까지 가득 차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예수중심교회가 주관하고 예수그리스도가 후원하는 ‘10·3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애국가 1절에 이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고 함께 부르며 우리의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자도 애국자이듯, 기도로 후원하는 자 역시 애국자입니다. 아니,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이 설움 저 설움이 있다지만 국가 없는 설움보다 더 하겠습니까?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만도 못합니다. 작금의 시리아 사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미래와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나면 그것은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열강의 신무기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

리는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외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적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협력의 구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결의 구도는 공멸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기 전에 가장 시끄러운 법입니다. 요즘 이 나라가 여수선하고 시끄러운 것은 평화통일이 머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평화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분명 평화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한 것처럼 꿈을 꾸듯 평화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모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평화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애국가 제창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통일의 합성을 외쳤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30:15~16)

생사화복(生死禍福), 내가 선택한다

부모는 내가 택할 수 없습니다. 시대도 내가 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의 자식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는 우리가 생사화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을 내 맘대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 그것도 불행이 아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生)과 복(福)은 무조건 택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30:16)는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레일을 이탈한 기차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아담이 첫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 아담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느냐, 따 먹지 않느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하와의 꾀임에 빠진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죽음과 불행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시111:4),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 지느니라”(잠10: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잠19:23),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22:4).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답을 보고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그

들의 국력이 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신신당부하는 고별사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24:14). 그리고 그는 단호히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강 저

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오늘날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가 말입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돌에 새긴 것에 절한대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우선적으로 삼고,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자식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얹어놓고 삽니다. 회색분자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해?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해야지.” 라고요. 그러나 단호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색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차 없이 그런 자들을 내치십니다. 원숭이가 어느 날 외출을 했습니다. 한 참을 돌아다니다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듯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의 놀이방식이 자신이 살던 곳과는 달리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슬슬 외눈박이 원숭이 곁으로 다가가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을 가진 원

숭이를 이상한 듯 쳐다보고 자기들끼리만 놀았습니다. 어떻게든 외

은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촉구하는 말입니다. 회색분자에게 하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 세상 쪽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들고 위협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마7:13~14).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좁은 길이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등 믿음의 선전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눈 덮인 산악였고,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이었지만 이를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축복을 저와 우리 교단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눈박이가 본들 제대로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하나님 눈에만 들면,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면 만물은 여러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좇아다니지 마세요. 권력을 얻으려고 술수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좇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사망과 불행은 사라지고, 생명과 행복을 쥐게 될 것입니다. 왕비를 비롯한 모든 자들이 부와 권력을 구했지만, 왕만 가지면 된다고 보자기를 편 후궁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왕만 내 편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생(生)과 복(福)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눈박이 원숭이와 함께 하고픈 두눈박이 원숭이는 고민 고민하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도 외눈박이가 되면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는 돌 하나를 들어 자신의 눈을 쳐 빼냈습니다. 그리고 외눈박이 원숭이에게 가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이제 외눈박이야.” 하자 그들이 환대를 해주며 친구로 맞아주었습니다. 외눈박이가 된 원숭이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병신이 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눈박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빼버리고 세상으로 향한 눈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왕상18:21). 이것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그곳으로 오라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문제에 봉착하거나 혼돈에 빠졌을 때, 혹은 타성에 젖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삶에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사실 문제해결의 단초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성경에 야곱이 금의환향 후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좀 편안하다 할 즈음에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에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사면초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당황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창35:1).

곧, ‘네와 내가 처음 만났던 장소로 오라’는 말씀이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창35:2~5).

이렇게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죄를 회개하고 그곳,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는 찬송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빠, 엄마랑 떨어져 길을 잃었느냐? 그럼 여기서 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아빠, 엄마랑 있었던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꼭 찾으러 가마.”

세상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르는 말이지만,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냥 방치하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곳에서 헤매고 있어도 언제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니던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위협이 턱 밑의 비수처럼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모여 10월 3일 개천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을 가득 채웠다. 동족상잔의 뼈아픈 한국전쟁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전쟁기념관에서의 기도성회는 참으로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서울시청 광장에 이어서 올해는 전쟁기념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가슴이 너무나 벅찼다. 하나님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선봉으로 서는 사명을 받은 예수중심교회의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법, 도덕도 없고 오로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며 싸우다 죽어간 순국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넋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평화통일을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다.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국토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기까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룩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남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상숭배를 금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의 열강들만 좋아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열강 가운데 어떤 열강에게 의지할 것인가? 열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끊임없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다함께 김일성 광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집회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김성일
cre8tor@naver.com



보이지 않는 것의 귀중함

끝까지 간다!

아들아!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희라는 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언니 보희가 망측스럽다는 얼굴로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꿈에 서악(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오줌이 경주에 가득 찼다는 꿈이었지. 언니는 참 면구스러운 꿈이라며 동생에게 얘기하자 동생이 얼른 그 꿈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다. 동생은 알았던 거야.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닌 것을. 언니는 망측하기까지 한 꿈을 동생이 산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비단치마 저고리 한 벌을 받고 팔았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열흘이나 지났을까, 오빠인 김유신이 왕의 손자로 진골(眞骨)인 춘추와 공을 차다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밟아 웃고름을 떨어뜨렸지. 그리고는 웃고름을 달아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인 후에 언니인 보희에게 그것을 달아주라고 했다. 보희와 춘추를 연결시켜주려고 한 게지. 그런데 보희는 처녀가 어찌 외간남자의 옷을 껴매겠느냐며 이를 고사했지만, 반면 문희에게 부탁하니 선뜻 응했다. 그 때부터 춘추와 문희는 연모하는 사이가 되고 아이까지 갖게 되지. 김유신은 혼례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동생을 가법(家法)대로 화형에 처한다고 불을 피우고 난리를 쳤지. 연극을 한 거야. 이렇게 난리를 쳐서 춘추와 결혼을 시키게 된단다. 그 후 춘추와 문희 둘은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고, 뒷날에 춘추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태종무열왕이란다. 당연히 문희는 왕후가 되었지.

아들아!

꿈을 가버이 여기면 안 된단다.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거든. 뱃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비단치마저고리 한 벌과 왕후의 자리를 바꾼 어리석은 보희 같은 자가 성경에도 있단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지. 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을 알았기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쟁취한 거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니 그것을 잘 지켜라.

朋友

지난 달 청년부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성하는 마음으로 짙은 어둠과 새벽안개를 뚫고 저 멀리 부천, 성남을 포합해 서울의 전 지역에서 대방교육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새벽이다 보니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아직 첫차도 다니지 않은 상황이었고, 개인차량이 없는 청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카풀로 모이곤 하였다.

이 때, 같은 지역에 사는 A, B라는 청년들이 있었다. A청년은 임원이었으며 B청년은 청년부에 온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다. 그리하여 A청년은 B청년을 직접 챙기며 새벽마다 모닝콜에 차량운행까지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B청년은 새벽기도 기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A청년에게 감사했다.

대망의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처음 시작할 때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완주를 마친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 중에는 B청년도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B청년을 데리고 왔던 A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청년이 늦잠을 자 B

청년은 홀로 기도회에 참석한 것이다. A청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며 기도회 기간 동안 꼬박 개근을 했는데 마지막 날 결석을 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컸다. 단순한 에피소드일지 모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때 12제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은 손에 꼽힌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레이스에 뛰어 들지만 뒤로 갈수록 처음 마음을 버리고 중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레이스에서 낙오되거나 한 눈을 팔게 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날처럼 변함이 없길 바라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신앙레이스를 완주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중심 성도들이 됩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죽은 꿈

야고보 사도는 말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꿈도 똑같습니다. 바라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꿈은 죽은 꿈입니다. 허상일 뿐이지요. 지금 당신이 꾸고 있는 그 꿈은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다녀온 어떤 분이 세계 일주를 꿈꾸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무조건 떠나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더 잘 찾아내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타려고 했지만, 언젠가라는 요일은 없다네!” 할리데이비슨 광고 카피처럼 인생에서 언젠가로 미뤄둔 일들,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룰 ‘언젠가’라는 요일은 없습니다. 사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걸. 저는 매년 한 가지씩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영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나서 못했던 것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추우니까 다음 달에 하자,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하자, 비가 오니까 다음에 하자. 막상 시작하려니 미루고 싶은 이유가 한 트릭이었지만 일단 목표를 세웠으니 귀찮음을 무릅쓰고 근처 수영장을 찾고, 등록하고, 수영복을 사고, 새벽 6시 30분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수영장에 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수영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자유형, 배영, 평영, 그 다음 단계인 접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영화, TV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그런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후로는 서핑도 배우고 싶고 스쿠버다이빙 자격증도 따야겠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평생 지각대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새벽까지 일

해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갑니다. 올해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지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크고 작은 꿈, 그것이 죽은 꿈이 되지 않도록 무엇이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 진작할 걸, 하실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어느 인쇄 카피를 함께 읽고 싶어 적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요? 늘 뻥조를 연주하고 싶었다고요? 레슨을 받으세요. 그리스의 섬들을 가보는 것이 꿈이었다고요? 여행사에 전화하세요. 욕실의 벽지가 싫다고요? 떼어내고 페인트칠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조깅을 시작하세요. 손수 재배한 토마토의 맛을 즐겨보고 싶다고요? 토마토를 심으세요. 집 근처 도로에 난 구멍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반사회에 참석하세요. 당신이 계속 미뤄온 것들을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존 스타인벡의 중편소설 ‘진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이따금씩 깊은 바다에 들어가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기 드문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 같은 들뜬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진주가 불행의 씨앗이 되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그 진주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그 진주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5:10).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만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손에 쥐게 되어도 만족함이 없고, 때론 그것

때문에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편안함, 젊은이에게 독약이다. 거부하라.

Refuse comfort, which is poison to the youth.
舒适安逸对于年轻人是一个毒药。要拒绝它。

✧ 꿈과 도전, 모험은 자신감의 선물이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한다

Dream, challenge and adventure will give you confidence and show you a new world.
梦想,挑战和冒险带给你自信这个礼物,并且让你晓得新的世界。

힘 빼고 살기

:: 생활 속의 잠언 ::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순간이면 본능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힘이 들어간다. 때로는 그 힘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망치는 스트레스로 변한다. 얼마 전 이코노미 석에 앉아서 6시간 이상을 비행한 적이 있었다. 긴 시간동안 잠이라도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후로 몇 시간을 뜬 눈으로 뒤척이며 좁은 공간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목적지까지 편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더니 점차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이 빠지게 되었다. 긴장은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이 사소한 일처럼 범사에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들어갔던 인간적인 힘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

고 기도를 해보자. 기도는 나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다. 이번 평화통일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겠다는 목사님의 고백 덕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힘을 빼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인간적인 뜻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운영하는 사업장을 만약 나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대로 판단하여 뜻대로 처분했다면 지금 같은 축복의 성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애통하는 시간동안 혼자서 해보려는 억척같은 힘을 다 버리고 나니,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선물해주셨다. 작은 사업장과 하룻밤 잠자리도 그리한데,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육체의 소유와 힘을 십자가 뒤로 던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곳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힘 빼는 연습을 해보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평화통일 기도성회 후기

* 저녁때도 멈추지 않던 비가 아침에는 태양 빛으로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이 되는 모습이었습니 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 익산교회 양풍성 목사

* 나의 사랑과 신앙의 아름다운 하모니! - 아산교회 박인덕 목사

*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에게 평화통일의 소원을 주시고, 교단의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공도교회 임영인 목사

* 평화통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한국을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과 각부 각처에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이 예수중심교단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중심교단을 사랑합니다. - 비전교회 오정식 목사

*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반드시 통일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성회였습니다. 환웃 입은 무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 이천교회 정재일 목사

*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기도성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성회가 온전히 열매를 맺어 결실하리라 확신합니다. - 의정부교회 박찬일 목사

* 마산에서 먼 길 피곤치 않았냐고요? 너무 기쁘고 은혜 받아 구름위에 떠있는 기분입니다. 곧 통일의 구름 위를 떠다닙시다. - 마산교회 최연식 목사

*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장님께서 피를 토하시듯 설교하시는 모습과 메시지는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과 애국애족, 애민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 오산교회 차명선 목사

* 먼저 예수 구원을 외치시며 남북이 대화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권면하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준엄하신 말씀선포에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 대구교회 한송이 목사

* 집회 당일의 날씨가 그림자 응답이라면, 평화통일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사밧이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주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평화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 서귀포교회 김바울 목사

* 비를 맞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 따라 행동하는 우리 교단 성도님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으며, 곧 여리고성과 같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드림교회 이진호 목사